

존스 홉킨즈대 등 세계적 명문대 입학 쾌거

기독교명문 글로벌선진학교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 겪어, 기도 당부

글로벌선진학교(이사장 남진석 목사, 이하 GVCS)는 지난 5월 25일(월) 오전 11시 서울 뉴국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존스 홉킨즈대학을 비롯 코넬대학교, U아클랜드 대학교 등 세계적 명문대학 진학 소식을 전하며 코로나19로 가려졌던 세계적 분위기가 가운뎃데 최선을 다한 결과물에 하나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기 전곡순회 입학설명회 일정 및 GVCS의 각 캠퍼스 대학진학결과를 상세히 발표했다.

이날 이사장 남진석 목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각국에서 지혜와 통찰력을 지닌 글로벌리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GVCS가 100여의 지구촌을 섬길 하나님을 아는 글로벌 인재양성 사역을 지속하는 당위성이 증명되고 있다"면서 교계의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을 요청했다.

또 남 이사장은 "지난해보다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좀 더 높은 랭킹의 대학에 진학하는 쾌거를 이뤘다. 약 150명의 학생들이 모두 100억이 넘는 장학금을 약속받았다"고 성과를 설명했다. 남 이사장은 코로나로 촉발된 '언택트 시대'에 "미국 펜실베이니아캠퍼스에

우리 기숙사가 제일 안전하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학교 자체를 외부와의 접촉을 봉쇄하고 철저한 방역 속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 결과 미국의 초중고가 다 문을 닫았는데, 우리 학교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온라인 학습을 진행하면서 부모들이 참가자로서 GVCS의 우수성을 절감하는 효과를 봤다"며, "언택트 시대를 극복할 인재가 우리 학교에서 많이 배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모집 중인 이번 가을학기에는 7~10학년(중1~고1)에 해당하는 학생이 음성과 문경캠퍼스에 편입생으로 지원할 수 있고, 미국 펜실베이니아캠퍼스에는 7~11학년(중1~고2)에 해당하는 학생이 신·편입생으로 지원할 수 있다.

070-7709-2245 www.gemgem.org



김헌수 목사 저서 출판 감사예배

천국환송예식서 · 성경적천국환송 · 위해피(We Happy)

김헌수 목사(투레본선교회 대표, 꿈나무공교회 담임)의 저서 ▲천국환송예식서 ▲성경적천국환송 ▲위해피(We Happy) 출판기념예배가 지난 5월 19일(화) 오후2시 용인시 기흥구 소재 리버티하우스에서 드러졌다.

꿈나무공교회 · 천국환송지도사 모임이 주최한 이번 출판기념회는 1부 감사예배, 2부 출판기념회, 3부 코이노니아(교제시간) 순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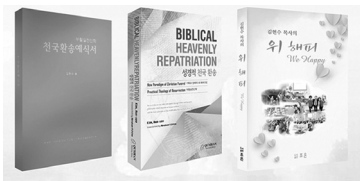
1부 감사예배는 조경민 목사(천국환송지도사 1기) 사모로 로시열 목사(2기)의 기도, 황기현 장로(4기)의 성경봉독, 김진호 목사(기감 전 감독회장)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제목의 설교, 조성호 장로(4기)의 광고, 이귀범 목사(8기)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2부 출판기념회는 송기섭 목사(천국환송지도사 8기)의 진행으로 김소임 교수의 피아노 특별연주, 유은주 목사(6기)의 내빈소개, 안진석 목사(8기)의 환



영사, 최현정 국장(1기)의 경과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저서소개는 광현복 목사(3기)가 천국환송예식서를, 김관철 목사(6기)가 성경적천국환송(개정판)을, 박찬영 목사(5기)가 위해피를 소개했으며, 강성희 목사(6기)의 저자소개에 이어 저자 김헌수 목사가 인사말을 전했다.

계속된 기념회는 민경배 박사(연세대 전 신과대학장)의 서평, 영문번역자 김영대 선교사의 인사, 이형규 장로(원안출판사 대표) · 김화인 목사(도서출판 조은 대표)의 발간사, 동문회장 강전우 목사(천국환송지도사 1기) · 사업단장 이현호 장로(7기)의 인사, 시인 박재택 목사의 축사낭송 순으로 이어졌다.



신간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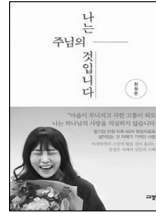
어린이 천로역정



존 번연의 '천로역정'은 1678년에 출간되어 400년이 가깝도록 많은 이들의 영혼을 깨우치며 감동을 주고 있다. 주인공 '크리스천'이 천성을 향해 순례의 길을 시작하는 것부터 천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진리를 생동감 있게 전한다. '천로역정'은 어린이부터 신학자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필요한 책으로 여겨져 왔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모르는 아이에게는 전도의 도구로, 이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에게는 바른 성도로서의 삶에 대한 안내서로서 가치를 가져왔다. 이번에 '어린이 천로역정'을 통해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언어로 복음의 가치를 풀어내어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 더욱 뜻 깊은 의미를 가진다.

저자 : 존 번연, 각색 : 장보영, 일러스트 : 공감경아 | 출판사 : 생명의말씀사
발행일 : 2020-05-29 | (148*210)mm 112p | 판매가 : 11,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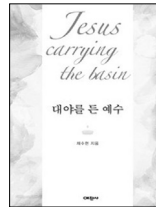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그 삶의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했다면, 천정은 자매는 이 시대 부활의 증인이다. 2012년 유병암 딸기 판정을 받은 그녀는 중보기도의 능력으로 항암 부작용과 암침묵 시라지는 기적을 체험하며 예수님을 뜨겁게 영접했다. 이후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던 삶을 청산하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참 예배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1년 반만에 암이 재발했지만, '암은 선물이며 죽음은 소망'임을 깨달으며 암 환자를 전도하는 사명자로 거듭났다. 2020년 5월 현재, 80차 항암치료로 걷는 것마저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그녀의 발걸음은 날마다 암 환우들과 그 가족을 향한다. 그들의 고통과 두려움을 공감하고 위로할 뿐 아니라 부활 복음의 빛을 싣고 있다.

저자 : 천정은 | 출판사 : 규장 | 발행일 : 2020-05-25 | (128*188)mm 224p | 판매가 : 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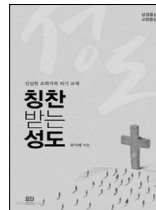
대야를 든 예수



이 책은 천국에 대해 모르거나 오해해서 그곳을 믿지 않고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성경과 천국과 예수에 대하여 아주 알기 쉽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다. 천국이 나쁜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곳은 어떤 곳일까? 천국의 주인은 누구일까?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천국에서 어떤 삶을 살까?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알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곳이라서 호기심과 궁금증이 가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책에서도 천국의 작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는 맘을 갖게 할 것이다. 이 글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나 전도대상자들에게 생애한 선물이 될 것이다.

저자 : 채수현 | 출판사 : 예천사 | 발행일 : 2020-05-31 | 신국판 248p | 판매가 : 12,000원

칭찬 받는 성도



'칭찬받는 성도'는 교회에서 교인들을 훈련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발간된 신앙훈련 교재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인의 삶과 또한 교회 멤버십으로서 알아야 할 성경의 기본 진리를 전체 14주 동안 주체별로 공부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이 교재는 개인의 자율적 공부, 목회자나 교회 리더의 강의와 질문을 중심으로 한 토론 등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룹에서 사용할 때는 충분한 예습이 필요하다. 모임에 참석하기 전에 미리 예습을 통하여 얻은 교훈이나 적용사항을 중심으로 서로 나눈다면 더 큰 효과를 얻을 것이다. 이 교재는 1997년 8월 초판 발간 이후 수차례 개정 출판을 거듭하면서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

저자 : 류익태 | 출판사 : 요단출판사
발행일 : 2020-05-29 | (152*225)mm 312p | 판매가 : 13,000원

백석문화대, 데이터마케팅코리아 이진형 대표 초청 특강

백석문화대학교(총장 송기신) 정의융합교양교육원은 5월 28일(목) 오전 10시 30분, 교내 백석홀 소강당에서 데이터마케팅코리아 이진형 대표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했다.

이진형 대표는 한국지식경영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회사 설립 전에는 LG CNS 빅데이터 사업 리더로 활동하기도 했다.

'감으로 하는 마케팅은 끝났다!'라는 주제로 특강

을 진행한 이진형 대표는 "마케팅 부서가 돈 쓰는 부서가 아니라 돈 버는 부서로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는 감으로 하는 마케팅이 아닌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마케팅이 중요하다"며 "강력한 마케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약점, 강점 분석과 미래 예측"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마케팅 의사결정은 소비자의 구매 예측은 물론 6개월 뒤 어떤 제품이 가장 많이 팔릴지에 대한

예측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0학년도 1학기 백석대벤처아카데미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최소한의 교직원만 참석한 가운데 재학생 대상 온라인 특강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강은 김성준 에니온사의 '데이터의 신' (6월 4일), 침실이초 성지환 대표의 '배우 트렌디한 회사'의 매우 마련한 대표 이야기 (6월 11일) 등으로 이어진다.

민족복음화협의회 부흥지도자 세미나 열어

강사에 민경배 박사, 권정희 교수, 육수복 교수

민족복음화협의회(대표회장 육수복, 이하 민복협)는 지난 5월 25일(월) 오전부터 26일(화) 오후 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7. 소재 일본교회 예배실에서 강사 민경배 박사, 권정희 교수, 육수복 교수들

모시고 부흥지도자 세미나를 열었다.

25일 오전에는 본부장 한정수 목사의 '오리엔테이션' 후 제1강은 심재선 목사가 '부흥사의 윤리'에 대하여, 오후 제2강은 대표회장 육수복 목사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부흥운동'에 대하여, 제 3강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말씀이 우선이고, 은사는 차선"이다. "과거의 부흥운동과 현재의 부흥운동은 많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절실히 필요하다. 말씀에 의한 성령운동과 기도에 의한 성령운동"이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고,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제3강은 본부장 한정수 목사가 '부흥사의 소명'에 대하여, 제4강은 권정희 목사가 '교회공동체 성장



미래목회포럼 제16-2차 정기포럼

코로나 미래사회 변화와 언택트 목회선교 주제

미래목회포럼(대표 고명진 목사, 이사장 오정호 목사)은 제16-2차 정기포럼을 오는 6월 11일(목) 오전 11시 종교간리교회(최이우 목사)에서 '포스트 코로나 미래사회 변화와 언택트 목회선교'란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주제 발표는 안중배 국제미래학회 회장(한세대 교수)이 맡아 포스트 코로나시대 미래사회 변화의 핵심 특징을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는 언택트 목회와 선교의 성경적 의미와 방안에 대해 제시한다.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목회자들에게 코로나 이후 목회의 방향과 목회 비전이 제시될 것으로 모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국제미래학회 회장의 직강으로 공



신력을 확보한 포럼이란 점도 이번 포럼의 이 슈다.

이상대 목사(총괄본부장, 서광교회)의 사회로 진행되는 본 포럼은 참가비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나 생활 거리두기로 인한 좌석배치 관계로 반드시 사전 예약 (100명)으로 마감, 박영복 사무총장 010-8751-3453)을 해야 한다.

을 위한 성도의 변화'의 강의에서 부흥사로서 갖춰야 할 자세 및 영성 함양의 시간을 가졌다.

26일 오전에는 사무총장 백만기 목사의 '예배'와 제5강은 민경배 박사가 '한국교회 부흥운동사'에 대하여, 제6강은 박재선 목사가 '부흥사의 부흥의 전략'에 대하여, 제7강은 한영태 목사가 '부흥사의 부흥 전도운동'에 대하여, 제8강은 정현운 목사가 '부흥사와 민족복음화'에 대하여 각각 강의했다.

27일(수) 오전에는 한국기독교 130년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수료식 및 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날 부흥사들은 한국교회 부흥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다. 이날 수료예배는 본부장 한정수 목사의 사회아래 여성총재 손덕 목사가 대표로 기도와고 연수원장 김중남 목사가 헌사를 하며, 시인 박

재현 목사의 축사 낭독에 이어서 연수원장 김중남 목사가 축도하고 증서를 수여했다.

민족복음화협의회 조직은 다음과 같다. ▲교본 민경배 외 12명, ▲지도위원 권정희 외 40명, ▲이사 최남복, 한정수, 이귀범, 김현수, 김진태, 김지혜, 손덕, ▲대표총재 김진태, 상임총재 이귀범, 김중남, 이경욱, 여성총재 손덕, 총재, 최남복 외 29명, 부총재, 정원석 외 19명, ▲대표회장 육수복, 여성회장, 김지혜, 회장, 박성기 외 47명, 부회장, 김용복 외 26명, ▲서기 박일녀, ▲회계 김진조, ▲본부장 한정수, ▲사무총장 백만기, 사무국장 노영애, ▲지역대표, ▲부산 박용환 ▲대동 정바울 ▲광주 정희인 ▲충남 김중남 ▲충북 이연풍 ▲경남 전경욱 ▲경북 김연경 ▲전남 정의행 ▲제주 박예수(※ 계속 조직 중).